

공기업 기록경영 도입을 위한 구성 요소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Factor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Management for Records in Public Enterprises

박 옹 기 (Yong Gee Park)**

정 연 경 (Yeon Kyoung Chung)***

목 차

- | | |
|---------------------|--------------------------|
| 1. 서 론 | 4. 자료 분석 |
| 1.1 연구의 목적과 범위 | 4.1 탐색적 요인분석 및 기술적 통계 분석 |
| 1.2 선행연구 | 4.2 다중회귀분석 |
| 2. 이론적 배경 | 4.3 인구학적 특성과 집단간 차이 |
| 2.1 공기업의 특성 | 4.4 기관간 특성별 집단간 차이 |
| 2.2 기록경영과 공기업의 기록관리 | 5. 결론 및 제언 |
| 3.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 |

<초 록>

공공기관에는 공공성과 함께 기업성을 보유하는 공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공기관 기록관리에 필요한 제도나 정책수립에 공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ISO는 기록관리 표준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패밀리 구조의 기록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30300을 개발하였고 국내에서도 이를 산업표준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기록관리가 실무차원에서 벗어나 경영적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는 표준 체계가 마련된 것이며, 기록관리 인증제 도입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에 공기업의 특성과 기록경영 도입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공기업이 기록경영 도입을 위해 필요한 기록경영 구성 요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체계에 공기업 기록경영 요소를 반영할 것과 공기업이 기록경영 도입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공기업, 기록관리, 기록경영, 기록경영 구성 요소, 기록경영시스템 표준, 평가지표

<ABSTRACT>

A public enterprise is part of the public sector, and public enterprises possess entrepreneurship. However, the characteristics of a public enterprise have not been reflected i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2011, the ISO 30300 Series, a records management system, was developed. This indicates a more comprehensive management approach with regard to records management. Moreover, an introduction of the certification system of the ISO 30300 Series is expected.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enterprises and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records management system as well as analyzes the factors for its introduction. It also suggests an improved evaluation index and the requirements for public records management.

Keywords: public enterprise, records management, records management system, evaluation index

* 본 논문은 박옹기의 박사학위 논문(이화여자대학교 2016.2) 『공기업 기록경영 구성 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내용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광물자원공사 홍보실장(yonggee@kores.or.kr) (제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전공 교수(ykchung@ewha.ac.kr) (교신저자)

■ 접수일: 2016년 4월 25일 ■ 최초심사일: 2016년 5월 1일 ■ 게재확정일: 2016년 5월 11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2), 1-28, 2016. <<http://dx.doi.org/10.14404/JKSARM.2016.16.2.001>>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범위

우리나라 공공기관 기록관리 체계의 토대가 된 『KS X ISO 15489』는 기록관리 실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기록관리가 기관의 투명성과 행정 구현이라는 전사적 경영 차원의 영역임을 인식시키고자 할 때는 한계로 작용한다. 그간 정부가 주도한 기록관리 기반구축이 실무 정착을 위한 개선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은 이와 같은 맥락이다(곽건홍, 2011). 국제 기록관리표준 『ISO 15489』 또한 조직의 성공과 비전 달성을 지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표준 간 위계가 불분명하고 상호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표준화 방향에 대한 예측 또한 어려워 조직에 적용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경영진의 이해가 부족하고 실무자도 이해하기가 어려워 더욱 어려움이 있다(조송암, 2012a).

이러한 표준의 위계간 불명확성과 비체계성에 대한 해결책으로 ISO는 패밀리 구조의 기록경영시스템(MSR: Management System for Records) 표준인 『ISO 30300』 시리즈를 제정하였다(ISO, 2011). 국내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2013년 『KS X ISO 30300』과 『KS X ISO 30301』 요구사항을 제정하여 기록경영시스템 표준을 산업표준으로 받아들였다. 이로써 기록관리가 경영적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는 표준 체계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기록경영시스템 표준이 패밀리 구조로 제정됨에 따라 기록관리 인증제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록경영시스템을 기업에 도입하기에는 기록경

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기록경영 도입에 필요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기록경영의 토대가 되는 기관의 기록관리 현황에 대한 평가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성을 띄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성을 보유하는 공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공기업의 기업성은 성과의 능률성과 효과성에 관련된 개념으로 수익성으로도 표현되며 공공성과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에 있다(이영호, 2014). 그러므로 기업성은 공기업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보유하게 되는 고유한 특성인데 공공기관 기록관리에 관한 제도나 정책수립에는 공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공기관 기록관리체계는 기록경영체제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때 기업성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록경영시스템 표준 『ISO 30300』을 기업에 적용하고 나아가 인증제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록경영 활동을 기업에 도입할 수 있는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미년(2012)이 제시한 공기업 중에서 수익성이 높게 나타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주택보증(2015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어 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조폐공사의 필수 조직을 대상으로 기록경영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필수 조직은 기록경영 도입시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도록 지원하며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감사, 경영관리, 기획, 인사·노

무, 재무관련 부서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인식과 평가를 통해 기록경영 구성 요소의 중요도를 분석하였고 공공기관 기록관리체계에 이를 반영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1.2 선행연구

공기업 기업성에 대한 연구로 이영호(2014)는 공기업이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두 성과간 관계를 분석하여 서로 상쇄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유미년(2012)은 공기업 관리를 위한 이론이나 검증이 활발하지 않은 것은 공공조직적 특성인 공공성과 민간조직적 특성인 수익성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성격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두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두 성과가 서로 상쇄적인 관계가 아님을 제시하였다.

공공기관 기록관리체계에 대한 연구로 김초롱(2014)은 대학의 기록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행정기관 중심의 기록관리체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모든 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ISO 30301』을 대학 기록관리체계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김지현(2013)은 공기업이 사기업의 기업성과 행정기관의 공공성을 동시에 보유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을 모델로 하는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을 적용받겠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공기업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중앙행정기관 중심의 기록관리체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공기업 특성을 반영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박민선(2011)은 공공기관 중에서 조직의 목표, 유형이 상이한 정부산하공공기관이 『공공기록물관리예관법률』(행정자치부, 2006, 이하 공공기록물법)과 국가기록원 지침을 적용받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정부산하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체계와 적용절차를 경영성과적 측면과 연계하여야 함을 제시하면서 『ISO 30300』 표준 도입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최현난(2010)은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체도가 도입되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중앙행정부처 중심의 업무환경에 기반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공공기관 현장에서 기록관리를 실현하고 점검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제안하였다.

기록과 경영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로 조송암(2012b)은 『ISO 30301』 표준의 요구사항의 개수 분석을 통해 기록경영시스템 인증 표준의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경영시스템과 기록통제에서의 중요 요소를 도출하고 기록경영은 경영시스템과 기록통제 요소가 균형적으로 갖추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즉 『ISO 30301』에 따라 기록경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록과 함께 경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류가현(2011)은 기업의 기록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이자 조직비전 및 전략 달성을 위한 핵심지식이므로 기록관리가 기업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직의 목표와 특성에 맞는 기록경영 도입을 제안하고 『ISO 30300』을 공기업에 적용해 봄으로써 조직 비전 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임을 제시하였다.

한편 국외에서는 Bustelo와 Ellis(2010)가 기록경영시스템은 경영과정을 공유하는 모든 조

직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어떤 환경에서도 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접근점과 시스템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데 이는 사업성과 창출을 고무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Ellis(2009)는 기록경영 프로세스를 업무 기능 및 프로세스와 통합시키는 호주의 프로세스 통합방안을 소개하고 이는 기록시스템을 업무시스템 및 프로세스, 정보 아키텍처 등과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록관리가 경영차원에서 수행되려면 그에 대한 평가 도구가 필요하며, 이는 평가, 감시 인증제도에 의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Andolsen(2007)은 기록이 기업의 지식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기록관리와 기업 경영정책의 전략적 조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기록관리는 경영전략을 지원하는 업무 프로세스로 이해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프로세스 설계 시 필요한 요구사항을 제안하였다.

기록경영시스템 표준의 인증제에 대한 연구로 김호선(2014)이 『ISO 30301』 인증제도는 기록관리가 경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조직의 성공적인 경영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인증제 도입을 위해서는 법적 기반과 인센티브 정책 등 인증 운영체계의 정비와 기록경영 정책개발, 홍보·교육 등 기록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조송암(2009)은 기록경영시스템 표준이 ISO Guide 72의 경영시스템 표준 모델과 구조를 따르고 있어 조직의 성공을 지원하는 최선의 경영시스템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인증제도에 대비하여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경영시스템 운영

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조직을 성공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상기 연구를 종합하면 공기업의 기업성이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공공성과 서로 상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공공기관 기록관리체계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ISO 30300』 표준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으로써 표준의 적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을 보여준다. 또한 기록관리 개선을 위해 『ISO 30300』 표준 도입이나 기관 평가를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기록관리 확산을 위해 기관의 의지가 병행되어야 하는 경영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공기업의 특성

『공공기관 운영법』에서는 기관의 정원이 50인 이상,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 자체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100분의 85를 초과하면 시장형 공기업으로 나머지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공공기관 운영법』에 의해 실시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대규모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 이하 SOC) 기관을 공기업 I군으로, 중소기업과 서비스 진흥·제조 기관을 II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공기업은 일반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는 공공성에 기

반함을 보여준다. Robson(1960)은 이러한 공공성을 국가이익이 요구할 때 공기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사회경제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공기업이 정부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여 공익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이때 공공성이 추구하는 바를 당위론적 접근법에서는 사회 구성원을 보다 더 잘 살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가 당연히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표로 보고 있다(Dahl and Lindblom, 1953). 그러므로 공기업의 공공성은 국가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추진하는 정부 정책과 연계된 활동의 성과이다.

반면, 공기업의 기업성은 수익성으로도 표현되며 성과로서 효과성 및 능률성과 관련된 개념이다(이영호, 2014). 공기업의 기업성은 공공성에 기반한 것으로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기업성과는 구별된다. 오히려 공기업의 수익성 제고는 경영개선의 결과로 국민경제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김지영, 2010). 따라서 공기업의 기업성은 공기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도록 지원해 주는 성과로 공기업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보유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2.2 기록경영과 공기업의 기록관리

2.2.1 기록관리와 기록경영

기록관리 표준 『ISO 15489』는 기록경영시스템 체계 안에서 기록 프로세스에 필요한 주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기록경영 운영의 기반이 되는 모범적 실무를 체계화한 것이다(ISO, 2011). 이는 기록경영시스템 표준의 기록 프로세스 운영이 기록관리에 기반함을 의미하

므로 기록관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공기록물법』에서는 기록물관리를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로 정의하고 있다. 이때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물을 생산,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SO 15489』, 『ISO 30300』과 IMRT(2009)에서는 기록의 생산, 접수, 유지, 이용, 처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영역으로 업무 활동과 처리행위에 관한 증거와 정보를 기록형태로 획득, 유지하는 과정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이때 획득을 전자기록관리시스템에서 기록 생산과 동시에 확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서는 기록관리는 정보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하면서 각 과정은 생애주기 관점인 생산, 획득, 보관, 이용, 처분 과정과 유사하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생산과정, 수집과 접수를 통한 획득과정, 분류, 정리, 배열 등을 통한 보관과정, 공개·활용, 검색 등의 이용과정, 보유, 파기를 결정하는 처분 또는 폐기과정에 대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혹자는 『ISO 15489』의 기록관리 정의를 기록경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는 management가 관리나 경영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록경영의 개념이 대두된 기록경영시스템의 표준명은 『Management Systems for Records』로 기록관리 표준명인 『Records Management』와는 구분이 된다. 따라서 기록관리와 기록경영을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Bustelo와 Ellis(2011)는 조직이 기록을 생산하고 통제함에 있어 실무적 차원에서 전략적

수준으로 전환하기 위해 『ISO 30300』이 생성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록의 모범적 실무인 『ISO 15489』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지원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기록경영시스템이 대두된 만큼 기록경영은 기록관리에 기반하는 활동이나 실무차원이 아닌 경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기록관리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기록경영 개념이 대두된 『ISO 30300』은 기록경영시스템을 기록에 관하여 조직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경영시스템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기록 프로세스에만 한정되었던 기록관리를 조직 내 산재된 기록관련 요소와 연계함으로써 기록관리 활동이 경영차원임을 제시하고 있다. 경영시스템 관점에서는 기관 내 기록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어떻게 조직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체계임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록경영시스템은 기록 프로세스에 기반한 기록경영 활동이 조직의 목적 달성을 지원하는 전략적 경영체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 기록관리 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2.2.2 공기업 기록관리와 기록경영의 필요성

1) 공기업 기록관리

공기업 기록관리는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지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평가기능을 확

보하면서 국가기록원은 2008년부터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피평가기관은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접관리공공기관, 국·공립대학교로 총 6개 유형이다. 이중에서 직접관리공공기관은 국가기록원이 직접관리가 필요하여 지정한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 운영법』에 의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 해당된다. 2009년에 처음으로 직접관리공공기관에 대한 시범평가가 이루어졌고(국가기록원, 2009) 공식 평가는 2010년부터 시행되었는데 2014년부터 정부산하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국가기록원, 2013).

정부산하공공기관은 2009년 시범평가와 2010년 공식평가를 제외하고 전체 평균보다 높은 기록관리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년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규 지정 기관이 대거 유입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국가기록원, 2014).

2015년도 평가에서는 기록관 운영의 인프라 관련 지표가 통합되고 기본계획 수립 및 기관장 관심도 지표에서 기관장 추진의지가 분리되었다. 기록관리업무에서는 일부 지표가 삭제되고 기록정보서비스에서는 비공개기록물 재분류가 신설되면서 2014년에 비해 대폭 축소되어 <표 1>과 같이 11개로 운영되었다.

<표 1> 2015년 공기업 기록관리 평가지표

영역	평가지표	영역	평가지표	영역	평가지표
기록관 운영	기록관리 기본계획	기록정보 서비스	비공개기록물 재분류(신규)	기록 관리 업무	중요기록물관리
	인프라(조직, 인력, 시설·장비)구축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기록물 이관
	기관장 기록관리 추진의지(신규)		기록관리 우수사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지도·감독 및 교육		기록관리 사회적 신뢰도(가·감점)		

출처: 국가기록원, 2013, 『2014년도 기록관리 평가계획』, p. 16, 2015, 『2015년도 기록관리 평가계획』, p. 16.

2015년 추가된 기관장의 의지는 전사적으로 기록관리 확산을 추진하는 동력으로 의미있는 지표이나 이행여부나 지시전수를 확인하는 정량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이 평가의 목적이 성과평가를 통한 제도개선 및 자체 역량강화에 있다고 밝히고 있음에 따라 기관장 의지 평가는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표에서 제시한 정량적 수준에 미달되어도 기관의 기록경영 차원의 성과를 제시하는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록정보서비스의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지표가 추가되었다. 국가기록원은 2014년은 신규 지정된 기관으로 인해 평균이 하락하였고, 기관별 수준 차이가 커 지속적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국가기록원, 2014). 이 지표는 지속적 관리와 교육이 필요한 기관에게는 결코 쉬운 영역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기관과 동일한 정량평가를 적용하고 있어 지표의 적정성을 고민하게 한다. 따라서 기관 수준 차이가 클 때는 수준이 낮은 기관의 역량을 일정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노력을 선행한 후 일반 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현황통보, 분류기준관리의 적절성 등이 제외되었는데 이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물관리기관 간의 소통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이 지표들은 시스템과 관련된 업무들로 기관의 지원이 열악할 때는 쉽게 이행하기가 어렵다. 기록관리직원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각급 기록물관리기관을 잇는 연결고리이자 기록관리 확산을 위한 핵심자원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지표의 변화는 기록관리 추진 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중앙기록

물관리기관의 긍정적인 역할을 보여준다.

2) 공기업 기록경영의 필요성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행정자치부, 1999)이 2006년 『공공기록물법』으로 개정되면서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제시하여 이 법의 지향점을 뚜렷이 하였다. 이는 기록관리를 통해 공공기관 행정 투명성을 추구함으로써 기록관리를 경영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다. 이렇게 공공기관 기록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명시하였지만 『공공기록물법』은 여전히 실무 중심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재했던 시절에 실무에 관한 사항을 규제한 것은 기록관리체계의 토대를 다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토대는 기록관리 확산으로 이어지는 기반이 되므로 더욱 중요한 성과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무에 치중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제 실무적 접근은 기록과 관련된 영역으로 확대하여 조직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기록경영적 접근이 필요하다.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공공기록물법』과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공공기관운영법』을 동시에 적용받는다. 이는 공기업의 투명성은 어떤 측면에서 접근해도 지향되어야 하는 중요한 목적임을 말한다. 따라서 공기업의 기록관리체계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경영체제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직에 산재된 기록 관련 요소를 체계화하여야

한다.

2015년 현재, 총 30개 공기업 중 정부산하공공기관으로 기록관리평가를 받도록 지정된 기관은 15개로 절반 수준이다(국가기록원, 2015). 기록물은 기관의 기능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행정절차의 원인이자 결과물로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관리의 중요성이 늘 상존한다. 따라서 기록관리체계가 공기업에 적정한가는 별개의 문제로 기록관리 평가는 공기업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은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추구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 기록관리가 바로 그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유미년(2012)의 연구에서 수익성이 높게 나타난 9개 공기업의 필수 조직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필수 조직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5년 8월 3일부터 13일까지 각 기관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기관들이 공통으로 보유하는 필수 조직을 파악하고 인원이 총 914명임을 확인하였다.

본조사는 2015년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1개 기관은 경영혁신실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나머지 기관은 직접 방문하여 응답자가 설문항목에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방법을 사용하였다. 배포 당시 휴직과 장기 파견인원이 56명으로 파악됨에 따라 총 858부를 배포하였고 설문지는 직접 또는 우편, 전자메일 수집을 병행하여 566부를 수집하여 회수율은 66% 수준을 확보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 기록경영시스템표준 ISO

30301과 정부가 공기업 경영관리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평가체계의 토대가 된 Malcolm Baldrage 모형(NIST, 2014; NIST, 2012)과 지식경영에 대한 문헌연구를 분석하였다(김민철, 김동욱, 2007; 서도원, 이덕로, 김찬중, 2006; Turban, Rainer, & Potter, 2003; 이견창, 권순재, 2002; 김효근, 권희영, 정성휘, 2001; Alavi & Leidner, 2001; de Jager, 1999; APQC, 1996; Nonaka & Takeuchi, 1995). 이를 통해 공기업에 필요한 기록경영 구성 요소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인식 및 평가를 조사할 수 있는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공기업 조직의 환경 8문항, 기록경영 리더십 6문항, 기록경영 전략 7문항, 기록경영의 인적자원과 조직문화 7문항, 기록시스템 운영 12문항, 기록경영의 측정·분석 및 개선 11문항으로 6개 영역에 대해 5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설계하였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에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2015년 7월 20일부터 30일까지 각 기관의 경영평가와 기록관리 총괄 담당자와 총괄 관리자를 9기관에서 각 4명씩 무작위로 추출하여 총 36명에게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에 대해서 크론바하 알파 값을 산출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데이터를 코딩한 후 PASW 21.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데이터 클리닝과 자료교정을 실시하고 측정 도구의 구성 문항과 요인에 대한 타당도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리고 자료속성과 기술통계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정규성을 검사하였다. 또한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

는 기록시스템 운영 요소에 대한 다른 요소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인구학적 특성과 집단간 특성에 따른 인식과 평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일원분산분석을 한 경우는 Scheffe의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 간 대소를 비교하였다. 이는 집단별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기록경영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인구학적 특성은 연령, 근무연수, 직위, 소속부서, 문서관리업무 수행 여부에 따라 살펴보았다. 문서관리업무는 문서 분류, 보존연한 설정, 이관 등의 일반적인 문서관리업무를 말한다. 기관간 특성은 규모, 유형,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평가 유무, 조직 체계, 필수 조직의 조직 내 차지하는 비율로 살펴보았다.

4. 자료 분석

4.1 탐색적 요인분석 및 기술적 통계 분석

총 분산(PCA)방식의 주성분 분석방법으로 분

석을 실시하고 Kaiser-Meyer-Olkin와 Bartlett 검정을 통해 요인분석의 적절성을 판단하였다. 요인 추출에는 베리맥스 회전을 실시하였고 각 요인과 문항의 선정기준은 요인적재값은 .4 이상을 고유치는 1 이상을 분산 누적은 60% 이상이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타당도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 전략 수립요인의 2개 항목, 업무 몰입도요인의 1개 항목과 분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프로세스의 투명성 요인의 1개 항목을 제거하여 구성 요소는 <표 2>와 같이 47개 문항으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각 문항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는데, 이때 하위 요소뿐만 아니라 상위 요소에 대해서도 측정하고 상위 요소가 하위 요소들을 대표하는 독립된 요소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된 6개 상위 요소와 13개 하위 요소에 대해 모두 측정하고 상·하위 요소에 대해서는 요소로 명명하고 상·하위 요소를 하나로 묶어 그룹으로 구분할 때는 영역으로 명명하였다.

전반적으로 4점 이상을 기록하여 기록경영 구성 요소의 평균값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조직원의 업무 환경과 관련된 업무 몰입도에 대한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에 반해 보

<표 2> 기록경영 구성 요소별 문항

상위 요소	하위 요소	문항	상위 요소	하위 요소	문항
공기업 조직의 환경	정책	3	기록경영의 인적 자원과 조직문화	업무 몰입도	2
	제도 및 조직	5		신뢰 및 협력	4
기록경영 리더십	리더십	3	기록시스템 운영	프로세스의 투명성	4
	문서화 의지	3		문서화 전략	7
기록경영 전략	전략 수립	2	기록경영의 측정·분석 및 개선	평가 및 분석	5
	전략 실행	3		보상	3
총계		47		개선	3

상 요소는 4점에 미치지 못한 수준으로 다른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부록 <표 1> 참조). 5점 만점에서 4.5점에 근접한 값을 나타내는 요소로는 업무 몰입도가 4.57, 프로세스의 투명성이 4.54, 제도 및 조직이 4.47로 나타났다. 업무 몰입도는 업무 결과를 문서로 생산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문서 생산이 투명행정 구현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중요성을 평가하는 요소이다. 프로세스의 투명성은 기록관리 업무 프로세스가 기록시스템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현황을 평가하는 요소이다. 제도 및 조직은 사내 규정과 조직 체계가 기록관련 활동에 미치는 정도에 대한 중요성을 평가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기록경영 구성 요소 중 업무 몰입도와 제도 및 조직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며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가장 잘 운영되는 요소로 평가하였다. 반면 보상은 3.69로 가장 낮았으며 전략 수립이 4.01로 그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보상은 기록관련 활동이 보상과 연계되는지를 평가하는 요소이며 전략 수립은 기록관련 활동이 전략 수립과 연계되는지에 대한 현황을 평가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기록경영 구성 요소 중 보상 요소와 전략 수립요소의 기록관련 활동 현황을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4.2 다중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기록시스템 운영 요소에 대한 각 요소별 영향관계를 살펴왔다. 모두 정(+)의 영향관계를 가지며 상위 요소의 영향력에 대한 설명력은 65.6%, 하위 요소의 영향력에 대한 설명력은 68.8%로 충분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과관계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기록시스템 운영 요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는 인과관계 값(β)이 2.83을 나타낸 기록경영의 측정·분석 및 개선 상위 요소와 2.88을 나타낸 평가 및 분석 하위 요소였다(부록 <표 2>, <표 3> 참조). 평가 및 분석 요소는 기록경영의 측정·분석 및 개선 영역의 하위 요소이므로 기록경영의 측정·분석 및 개선 영역이 보여주는 영향력은 평가 및 분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평가 및 분석의 β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어 기록시스템 운영에 미치는 영향력은 평가 및 분석 요소가 가장 크다. 따라서 평가 및 분석 요소가 개선될 때 기록시스템 운영 요소의 개선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4.3 인구학적 특성과 집단간 차이

4.3.1 인구학적 특성 개요

인구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연령에서는 30대가 261명(46.1%)으로 가장 많았다. 소속부서는 기획부서가 209명(36.9%)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위는 과장이 146명(25.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연수는 10년 이상에 245명(4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서관리업무 수행여부에서는 379명(67.0%)이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4> 참조).

4.3.2 인구학적 특성별 집단간 차이

1)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의 응답 결과는 16개

요소에서 모두 4점을 초과하여 대부분 높게 나타났으며 전략 수립(30대 3.88), 보상(20대 3.88, 30대 3.54, 40대 3.65), 기록경영의 측정·분석 및 개선(30대 3.98)에서 4점 이하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였고 그 결과 19개 요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부록 <표 5> 참조).

집단간 차이는 리더십에서는 50대가 20대와 30대보다, 문서화 의지와 보상에서는 50대가 30대와 40대보다, 기록경영 리더십에서는 50대가 다른 모든 집단보다 더 높게 인식 및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 수립, 전략 실행, 기록경영 전략, 업무 몰입도, 프로세스의 투명성, 문서화 전략, 기록시스템 운영, 평가 및 분석, 개선, 기록경영의 측정·분석 및 개선에서는 50대가 30대보다 더 높게 인식 및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뢰 및 협력에서는 20대가 30대보다, 기록경영의 인적자원과 조직문화에서는 20대와 50대가 30대보다 더 높게 인식 및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기업 조직의 환경 영역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연령에 따른 기록경영에 대한 인식 및 평가는 20대, 30대, 40대, 50대 모두 높게 나타났지만 신뢰 및 협력에서 20대가 30대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50대가 30대보다 더 높게 응답하였다. 이는 오랜 기간 근무한 50대가 경영활동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30대는 대부분 요소에서 50대보다 더 낮게 인식 및 평가를 하고 있었다. 한편, 조직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공기업 조직의 환경 영역은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세대의 구분이 없이 모두 중요하게 인

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소속부서

감사, 경영관리, 기획, 인사·노무, 재무부서의 응답 결과는 16개 요소에서 모두 4점을 초과하여 나타났으며 4점 이하의 응답 요소로는 전략 수립(인사·노무부서 3.89), 신뢰 및 협력(재무부서 3.97), 보상(감사 3.88, 경영관리 3.75, 기획 3.59, 인사·노무 3.66, 재무부서 3.48)에서 4점 이하로 나타났다. 소속부서에 따른 차이는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였고 그 결과 업무 몰입도, 신뢰 및 협력, 기록경영의 인적자원과 조직문화, 개선의 4개 요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6> 참조).

집단간 차이는 업무 몰입도와 개선은 감사부서가 재무부서보다, 신뢰 및 협력과 기록경영의 인적자원과 조직문화는 감사와 기획부서가 재무부서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서가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한 기록경영의 인적자원과 조직문화 영역에 대한 평가는 기업문화와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감사, 경영관리, 기획, 인사·노무부서는 타 부서의 협조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는 반면, 재무부서는 자금 조달, 회계 등의 고유 업무를 중심으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이로 인해 재무부서는 상호협력의 조직문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속부서에 따른 기록경영에 대한 인식 및 평가는 감사, 경영관리, 기획, 인사·노무, 재무부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다만 재무부서는 신뢰 및 협력 등의 조직문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직위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관리자의 응답 결과는 9개 기관 중 4개 기관에서 주임 직위가 응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집단 수가 많아지면 집단간 차이의 의미가 모호해질 수 있어 응답 결과와 직위의 역할을 반영하여 실무 수행에 강한 사원과 주임을 같은 집단으로 중견 사원에 해당하는 과장과 차장을 같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상대적으로 두 집단과 구분되는 대리와 직원과 구분되는 관리자 직위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에 사원·주임, 대리, 과장·차장, 관리자로 구분하였다.

응답 결과는 17개 요소에서 모두 4점을 초과하여 대부분 높게 나타났으며 전략 수립(대리 3.96, 과장·차장 3.92), 보상(사원·주임 3.73, 대리 3.51, 과장·차장 3.61)에서 4점 이하로 나타났다. 직위에 따른 차이는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였고 그 결과 리더십, 문서화 의지, 기록경영 리더십, 전략 실행, 기록경영 전략, 업무 몰입도, 기록경영의 인적자원과 조직문화, 프로세스의 투명성, 문서화 전략, 기록시스템 운영, 보상, 개선, 기록경영의 측정·분석 및 개선의 13개 요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부록 <표 7> 참조).

집단간 차이는 리더십, 문서화 의지, 기록경영 리더십은 관리자가 다른 집단보다, 업무 몰입도, 보상, 개선은 관리자가 대리, 과장·차장보다, 전략 실행과 기록경영 전략에서는 관리자가 과장·차장보다, 프로세스의 투명성, 문서화 전략, 기록시스템 운영, 기록경영의 측정·분석 및 개선에서는 관리자가 대리보다 더 높은 인식과 평가를 보였다. 반면, 기록경영의 인적자원과 조직문화는 직위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따라서 직위에 따른 기록경영에 대한 인식 및 평가는 사원·주임, 대리, 과장·차장, 관리자 모두 높았으며 그 중에서 조직을 통솔하는 관리자가 대부분의 영역에 대해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근무연수

근무연수 집단이 1년 이하, 2-3년, 4-5년, 6-7년, 8-9년, 10년 이상으로 6개로 구분됨에 따라 집단을 간소화하여 집단간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2-3년과 10년 이상이 가장 큰 점유율을 보임에 따라 1년 이하를 2-3년과 집단화하고 나머지는 10년 이상과 집단화하여 3년 이하, 4-9년, 10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응답 결과는 16개 요소에서 모두 4점을 초과하여 대부분 높게 나타났으며 전략 수립(4-9년 3.91), 보상(3년 이하 3.69, 4-9년 3.58, 10년 이상 3.76)을 기록경영의 측정·분석 및 개선(4-9년 3.98)에서 4점 이하로 나타났다. 근무연수에 따른 차이는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였고 제도 및 조직, 리더십, 문서화 의지, 기록경영 리더십, 전략 실행, 프로세스의 투명성, 문서화 전략, 기록시스템 운영, 평가 및 분석, 기록경영의 측정·분석 및 개선의 10개 요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부록 <표 8> 참조).

집단간 차이는 리더십, 문서화 의지, 전략 실행, 문서화 전략, 기록시스템 운영, 평가 및 분석, 기록경영의 측정·분석 및 개선은 10년 이상이 4-9년보다, 기록경영 리더십은 10년 이상이 다른 집단들보다 더 높게 인식 및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를 보이는 요소는 공기업 조직의 환경과

기록경영의 인적자원과 조직문화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이었으며 10년 이상이 4-9년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평가하였다. 앞서 연령별 특성에서 50대가 가장 높게 응답하고 30대가 낮게 응답한 것과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제도 및 조직, 프로세스의 투명성에서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근무연수에 따른 기록경영에 대한 인식 및 평가는 3년 이하, 4-9년, 10년 이상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지만 10년 이상 집단이 기록경영 활동 전반에 대해 더 높게 인식 및 평가한 반면, 4-9년 집단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평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5) 문서관리업무 수행여부

문서관리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응답 결과는 16개 요소에서 모두 4점을 초과하여 대부분 높게 나타났으며 전략 수립(경험 없는 경우 3.93), 보상(경험이 있는 경우 3.78, 없는 경우 3.52), 기록경영의 측정·분석 및 개선(경험이 없는 경우 3.97)에서 4점 이하로 나타났다.

문서관리업무 수행여부에 따른 차이는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검증하였고 리더십, 기록경영 리더십, 전략 실행, 기록경영 전략, 프로세스의 투명성, 기록시스템 운영, 평가 및 분석, 보상, 개선, 기록경영의 측정·분석 및 개선의 10개 요소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부록 <표 9> 참조).

따라서 문서관리업무 수행여부에 따른 기록경영에 대한 인식 및 평가는 대부분 높게 나타났으며, 문서관리업무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기록경영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인구학적 특성별 분석을 통해 50대, 관리자, 근무연수 10년 이상, 문서관리업무 경험이 있는 집단이 대부분의 요소에서 다른 집단보다 더 높게 응답하여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조직에 대한 경험과 이해력이 풍부할수록 그리고 기록관리업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할수록 기록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높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속부서 특성은 기록경영의 인적자원과 조직문화 영역과 개선 요소에서만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 집단간 인식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차이가 나타난 요소에서는 모두 재무부서가 타 부서보다 더 낮은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무부서가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타부서와의 협력과 관련되는 요소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구학적 특성 내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영역은 기록경영 활동 수행 시 정책과 제도 및 조직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공기업 조직의 환경이었다. 평균값이 4.42점으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정책과 제도 및 조직이 기록경영 활동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모든 집단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4 기관간 특성별 집단간 차이

4.4.1 기관간 특성 개요

기관별 응답자 수가 최소 30명에서 최대 100명으로 차이가 남에 따라 기관별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표 3>과 같이 9개 기관이 보유한 특성에 따라 기관을 구분하여 특성에 따른 집단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기관별 특성 구분

구분	A	B	C	D	E	F	G	H	I
기관 규모(명)	607	1,055	807	177	176	254	1,257	433	1,860
기관 유형*	서비스	SOC	서비스	SOC	SOC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SOC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평가 유무	○	○	○	X	X	X	○	X	○
조직 체계	중간	중간	중간	실무	실무	실무	중간	중간	중간
필수 조직 비율	23%	18%	12%	38%	30%	19%	10%	21%	6%

* 서비스·진흥·제조기관은 서비스로 표기

분석 결과, 규모에서는 1,000명 이상 규모의 집단이 43.6%(24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형에서는 SOC기관 집단이 44.5%(252명), 서비스·진흥·제조기관 집단이 55.5%(314명)로 나타났다.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평가에서는 평가받는 기관의 집단이 71.4%(404명)로 높게 나타났다. 조직 체계에서는 중간조직 체계의 집단이 81.6%(462명)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필수 조직 규모 비율에서는 15% 이상에서 30% 미만의 집단이 49.8%(28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5% 미만의 집단이 37.1%의 점유율을 보였다(부록 〈표 10〉 참조).

4.4.2 기관간 특성별 집단간 차이

1) 기관 규모

300명 미만, 300 -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규모의 응답 결과는 17개 요소에서 모두 4점을 초과하여 대부분 높게 나타났으며 전략 수립(300명 미만 3.99), 보상(300명 미만 3.60, 300명 이상 1,000명 미만 3.85, 1,000명 이상 3.60)에서 4점 이하로 나타났다.

기관 규모에 따른 차이는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였고 정책, 리더십, 업무 몰입도, 신뢰 및 협력, 기록경영의 인적자원과 조직문화, 보상의 6개 요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부록 〈표 11〉 참조).

집단간 차이는 정책에서는 300명 이상에서 1,000명 미만이 1,000명 이상보다, 업무 몰입도에서는 300명 미만과 300명 이상에서 1,000명 미만이 1,000명 이상보다, 신뢰 및 협력과 기록경영의 인적자원과 조직문화에서는 300명 미만이 1,000명 이상보다, 리더십에서는 300명 미만이 300명 이상에서 1,000명 미만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차이를 보이는 요소는 기록경영 전략 영역과 기록시스템 운영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이었으며 300명 미만 집단이 더 높게 인식 및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모가 작을수록 기록경영 활동이 전파되기가 용이함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보상에서는 기관 규모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기관 규모에 따른 기록경영에 대한 인식 및 평가는 300명 미만, 300명 -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기관 규모가 작을 때 기록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전파가 용이하여 보다 더 잘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기관 유형

SOC기관과 서비스·진흥·제조기관의 응답 결과는 17개 요소에서 모두 4점을 초과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보상(SOC 3.46, 서비스·진흥·

제조기관 3.88)에서 4점 이하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에 따른 차이는 T-test를 통해 검증하였고 신뢰 및 협력, 기록경영의 인적자원과 조직문화, 보상, 기록경영의 측정·분석 및 개선의 4개 요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부록 <표 12> 참조). 4개 요소에서는 모두 서비스·진흥·제조기관이 SOC기관보다 더 높게 인식 및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를 보이는 요소는 기록경영의 인적자원과 조직문화, 기록경영의 측정·분석 및 개선과 관련된 영역이다. SOC기관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운영하는 기관인데 반해 서비스·진흥·제조기관은 특정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부서의 기능에 따라 서비스가 상이함에 따라 서비스의 연계를 위해 부서간 협조가 더욱 필요한 여건이다. 이에 상호협조에 관한 인적자원과 조직문화 영역에서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관 유형에 따른 기록경영에 대한 인식 및 평가는 SOC기관과 서비스·진흥·제조기관 모두 높게 나타났지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진흥·제조기관이 기록경영의 인적자원 및 조직문화에 대해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3)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평가 실시 유무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평가를 받는 기관과 받지 않는 기관의 응답 결과는 17개의 요소에서 모두 4점을 초과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전략수립(평가받지 않음 3.93), 보상(평가받음 3.89, 평가받지 않음 3.62)에서 4점 이하로 나타났다.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평가를 받는 것('O')

과 받지 않는 것('X')에 따른 차이는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검증하였고 책, 공기업 조직의 환경, 리더십, 문서화 의지, 기록경영 리더십, 전략 수립, 전략 실행, 기록경영 전략, 업무 몰입도, 신뢰 및 협력, 기록경영의 인적자원과 조직문화, 평가 및 분석, 보상, 개선, 기록경영의 측정·분석 및 개선의 15개 요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부록 <표 13> 참조). 15개 요소에서는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평가를 받는 기관이 평가를 받지 않는 기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록시스템 운영에 대한 평가는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평가 유무에 따른 기록경영에 대한 인식 및 평가는 평가를 받는 기관과 받지 않는 기관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평가를 받는 기관이 받지 않는 기관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록관리 평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기록시스템 운영 영역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기록시스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이는 공공기관 전자문서체계를 기반으로 함에 따라 시스템 기반이 유사함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조직 체계

실무조직과 중간조직의 응답 결과는 17개 요소에서 모두 4점을 초과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전략 수립(실무조직 3.99), 보상(실무조직 3.60, 중간조직 3.72)에서 4점 이하를 나타냈다.

조직 체계에 따른 차이는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검증하였고 리더십, 신뢰 및 협력, 기록경영의 인적자원과 조직문화의 3개 요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14) 참조).

3개 요소에서는 실무조직이 중간조직 체계에 비해 모두 더 높게 인식 및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무조직을 총괄하는 중간조직 체계와는 달리 실무조직 체계는 기록경영 활동을 총괄하고 직접 추진함에 따라 기록경영 활동을 전파하는 기록경영 리더십 영역과 기록시스템 운영을 직접 지원하는 기록경영의 인적자원과 조직문화 영역에서 더 높은 평가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직 체계에 따른 기록경영에 대한 인식 및 평가는 실무조직과 중간조직 모두 높게 나타났지만 실무를 직접 추진하는 실무조직 체계가 실무조직을 총괄하는 중간조직 체계보다 기록경영 전파와 지원하는 활동 영역에서 더 높은 인식과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5) 필수 조직 비율

15% 미만, 15%-30% 미만, 30% 이상의 필수 조직 비율의 응답 결과는 17개 요소에서 모두 4점을 초과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전략수립(15%에서 30% 미만 3.98, 30% 이상 3.96), 보상(15% 미만 3.89, 15%에서 30% 3.58, 30% 이상 3.58)에서 4점 이하를 나타냈다.

필수 조직 비율에 따른 요소별 인식의 차이는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였고 정책, 공기업 조직의 환경, 리더십, 기록경영 리더십, 문서화 의지, 업무 몰입도, 신뢰 및 협력, 기록경영의 인적자원과 조직문화, 문서화 전략, 기록시스템 운영, 보상, 개선, 기록경영의 측정·분석 및 개선의 13개 요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부록 <표 15> 참조).

집단간 차이는 리더십, 기록경영 리더십, 신뢰

및 협력에서는 15% 미만과 30% 이상이 가장 높게 인식 및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서화 의지에서는 30% 이상이 15% 이상에서 30% 미만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업무 몰입도와 기록경영 인적자원과 조직문화에서는 30% 이상이 다른 집단보다 더 높게 평가하였다.

반면, 보상에서는 15% 미만이 다른 집단보다, 기록경영 측정·분석 및 개선에서는 15% 미만이 15% 이상에서 30% 미만보다 더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책, 공기업 조직의 환경, 문서화 전략, 기록시스템 운영, 개선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8개 요소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다. 8개 요소에서는 15% 미만과 30% 이상 집단이 더 높게 인식 및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조직은 규모가 작은 기관도 반드시 운영하여야 하는 조직이므로 규모가 작은 기관일수록 필수 조직 점유율은 높아지게 된다. 결국 필수 조직 비율이 가장 큰 30% 이상은 작은 규모의 집단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앞서 규모가 작은 조직이 기록경영 활동 전파가 용이하다고 분석한 바와 같은 맥락이다.

반면 15% 미만은 대부분 큰 규모의 조직에서 나타나는데 적은 비율의 조직이 전사적 지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영체계에 대한 강한 이해력과 추진력에 기반하여야 한다. 15% 미만에서 기록경영 활동을 더 높게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필수 조직 비율에 따른 기록경영에 대한 인식 및 평가는 15% 미만 15% 이상에서 30% 미만, 30% 이상 모두 높게 나타났지만 15% 미만과 30% 이상이 경영체계를 운영하는 통제력과 활동기반이 강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기관간 특성별 분석을 통해 300명 미만의 기관 규모와 서비스·진흥·제조 기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평가를 받는 기관과 실무조직, 그리고 필수 조직 비율 15% 미만과 30% 이상의 집단이 여러 요소에서 다른 집단보다 더 높게 응답하여 인식의 차이를 나타냈다. 300명 미만의 기관 규모와 30% 이상의 필수 조직 비율의 집단이 더 높게 응답한 것은 기관 규모가 작을 때 기록경영 활동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더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0% 이상 비율에는 300명 미만의 기관이 포함되어 있어 규모가 작은 기관이 나타내는 특성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기관 규모에 상관없이 필수 조직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규모가 작을수록 필수 조직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실무조직 체계와 필수 조직 비율 15% 미만의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높게 응답한 것은 실무력과 추진력을 갖춘 필수 조직이 기록경영 활동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더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무조직 체계는 중간조직 체계와는 달리 직접 업무를 수행하며 작은 비율의 필수 조직이 전사 조직의 경영체계를 지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활동기반과 추진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필수 조직은 기관 규모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데 15% 미만에는 1,000명 이상 규모의 조직이 해당되어 있다.

그리고 서비스·진흥·제조 기관이 기록경영의 인적자원과 조직문화 영역과 기록경영의 측정·분석 및 개선영역에 대해 높은 인식 및 평가를 하였다. SOC기관이 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서비스·진흥·제조 기관은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한다. 이

에 조직 내 서비스 연계를 위해 부서간 협조가 전제되어야 함에 따라 인적자원과 조직문화와 측정·분석 및 개선영역에서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평가를 받는 기관이 대부분의 요소에서 더 높은 인식 및 평가를 하였다. 이는 기록관리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모니터링을 통해 기록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관 특성 내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영역은 기록시스템 운영으로 프로세스 투명성과 문서화 전략에 대해 평가하는 영역이다. 평균값이 4.54점으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9개 공기업의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문서화 전략은 잘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실무중심의 기록관리는 경영시스템과 연계되는 기록경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기록관리 패러다임의 전환과 국제표준화기구의 기록경영시스템 표준의 인증시스템 개발 진행은 기록관리 환경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증 연구가 아직은 부족해서 기록경영 적용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기록관리체계에 공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노력도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기록관리체계에 공기업 특성을 반영하고 기록경영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기업이 기록경영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기록경영에 대한 구성 요소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적 특성을 가진 공기업을

대상으로 기록경영 구성 요소별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기록경영 구성 요소에 대한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9개 공기업 필수 조직 구성원의 인식 및 평가 결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요소는 업무 몰입도와 제도 및 조직 요소였으며 가장 잘 운영되는 요소로 평가된 요소는 프로세스의 투명성 요소였다. 반면 가장 부족한 요소로 개선이 필요한 요소로 평가된 요소는 보상과 전략 수립이었다. 또한 기록시스템 운영 요소의 개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평가 및 분석이었다. 잘 운용되고 있다고 평가된 프로세스의 투명성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는 중요하다고 인식하거나 개선되어야 하는 요소로 도출됨에 따라 공기업 기록관리 평가 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2015년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평가체계 영역은 기록관리 기반에 관한 기록관 운영과 기록관리에 관한 기록관리업무,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기록서비스의 3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각 영역은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록관 운영 영역에는 기록관 운영의 적절성의 평가항목에 기록관리 기본계획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2개 지표와 기록관리 업무 기반의 적정성 평가항목에 기관장의 기록관리 추진의지와 지도·감독 및 교육에 대한 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기록관리업무 영역에는 기록관리 업무절차의 적절성 평가항목에 중요기록물 관리, 기록물 이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에 대한 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기록서비스 영역에는 기록물 공개 및 활용의 평가항목에 비공개기록물 재분류와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에 대한 2개 지표와 기록관리 업무 개선의 평가항목에 기록관리 우수사례와 가·감점 대상

인 기록관리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기록경영 구성 요소에서 중요하게 나타난 업무 몰입도 요소는 기록 생산의 중요성과 투명 행정 구현에서의 기록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평가체계의 지도·감독 및 교육 지표의 기록관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교육 이수 여부의 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제도 및 조직 요소는 법규, 규정, 규제 등 사내 제도 및 조직체계가 기록관련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조직, 인력, 시설 등에 관한 인프라 지표에 기록관리에 관한 제도 구축 여부를 신규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낮게 평가되었던 보상 요소는 인센티브와 관련된 것으로 기관장의 기록관리 추진의지 지표의 기록관리 인센티브 운영실적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략 수립은 문서 생산 활동과 전략 수립과의 연계성에 대한 것으로 기록관리 기본계획 지표에서 전사 전략에 기록관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신규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록시스템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평가 및 분석 요소는 기록관련 활동 개선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도·감독 및 교육 지표의 지도·감독 및 후속조치 실시 여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업무 몰입도 요소가 지도·감독 및 교육 지표에 반영되도록 제안됨에 따라 지도·감독 및 교육 지표는 두 요소를 반영하게 된다. 이 지표는 지도·감독 및 후속 조치 실시 여부와 기록관 관리자 또는 업무담당자의 교육 이수에 관한 지표로 기록관리를 체계화하고 기록관리를 담당하는 인적자원을 위해 기록관리가 안정

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기관 내에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평가와 분석을 통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두 요소를 한 지표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특성에서 보여진 구성 요소간 관계 분석을 통해 공기업에 기록경영 구성 요소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정부는 기록 관련 평가정책과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공기업은 규정, 규범과 같은 제도를 기록관리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평가정책이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뿐만 아니라 행정 투명성과 책임 설명성을 제고하는 최적의 통제 수단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활동은 공기업 특성을 기록관리체계에 반영하는 노력으로 공기업 기록관리를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둘째, 공기업 필수 조직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기록경영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직급별, 근무연수별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긍정적인 인식은 더욱 강화시켜 상·하부 구성원에게 전파함으로써 기록경영 확산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기업의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기록경영 활동을 전달받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소규모 대상으로 확산시키고 이때 경영체제와 관련된 강력한 실무조직이 직접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추진력을 갖춘 실무조직이 소규모로 기록경영 활동을 전파하는 것이 기록경영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공기업 기록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스템의 표준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기록관리 확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공기업 기록경영의 구성 요소를 구체화하여 공기업 경영체제 관련 필수 조직 구성원의 기록경영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분석하였다. 향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일반 기업의 기록경영 도입을 유도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계속 되어야만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건홍 (2011). 기록관 체제 재검토. 기록학연구, 27, 3-33.
- 국가기록원 (2009). 2009년도 직접관리대상 공공기관 기록관리현황 시범평가 결과. 대전: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2013). 2014년도 기록관리 평가계획. 대전: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2014). 2014년도 기록관리 평가결과. 대전: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2015). 2015년도 기록관리 평가계획. 대전: 국가기록원.
- 김동희 (2007). 행정법 II, 제13판. 서울: 박영사.
- 김민철, 김동욱 (2007). 공공기관의 지식관리시스템 성공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2), 1-28.
- 김지영 (2010). 현안분석: 경영평가제도와 공기업의 수익성. 재정포럼, 172, 26-46.
- 김지현 (2013).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공기업의 기록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3),

73-97.

- 김초롱 (2014). 대학기록관에서의 기록경영시스템 표준 도입에 관한 연구: ISO 30301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효근, 권희영, 정성희 (2001). 조직의 지식경영 준비도 측정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지식경영연구, 2(1), 45-63.
- 김효선 (2014). ISO 30301 기록경영시스템 표준 인증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 류가현 (2011). 기록경영시스템 표준 시리즈 적용에 따른 기대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박민선 (2011). 정부산하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의 경영성과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서도원, 이덕로, 김찬중 (2006). 지식경영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기업규모 업종별 비교를 중심으로. 지식경영연구, 7(2), 69-96.
- 유미년 (2012). 공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공공성 및 수익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건창, 권순재 (2002). KMPI: 지식경영 성과지표의 실증적 분석에 관한 연구 - 코스닥 (KOSDAQ)에 상장된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31(3), 577-601.
- 이영호 (2014). 공기업 경영평가지표를 대상으로 공공성평가의 상관관계 실증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정수영 (2000). 경영학대사전. 서울: 박영사.
- 조송암 (2009). ISO 30301 기록경영시스템 표준 소개 및 인증제도에 대한 국내 대응. 국제기록경영시스템표준 컨퍼런스, 2009. 10. [서울: 63빌딩].
- 조송암 (2012a). ISO 30301 기록경영시스템 표준 소개 1편 도입배경. 검색일자: 2014. 6. 12. <http://www.dims.co.kr/activities/column.php>
- 조송암 (2012b). ISO 30301 기록경영시스템 표준 요구사항 개수 분석 연구. 검색일자: 2014. 6. 12. http://www.dims.co.kr/activities/column_view.php?idx=606&curr_page=1&code=B&no=2
- Andolsen, A. A. (2007). Does Your RIM Program Need a Strategic Alignment?.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41(4), 35-40.
- Alavi, M. & Leidner, D. E. (2001). Knowledge Management and Knowledge Management Systems. MIS Quarterly, 25(1), 107-136.
- APQC (1996). Knowledge Management Consortium Benchmarking Study. Houston: American Reductivity and Quality Center.
- Bustelo, C. & Ellis, J. (2010). Better Records=Better Business. Using Iso 30300 in the Strategic Management of Your Organization.
- Bustelo, C. & Ellis, J. (2011). What is ISO 30300? Who, When Where, Why and How to Implement. Retrieved September 24, 2014, from

- http://www.iso30300.es/wp-content/uploads/2011/12/Innovadoc2011_JEllisCBustelo.pdf
- Dahl, R. A. & Lindblom, C. E. (1953). Politics, Economics, and Welfare. New York: Harpercollins.
- de Jager, Martha (1999). The KMAT: Benchmarking Knowledge Management. Library Management, 20(7), 367-372.
- Ellis, Judith (2009). Better Records-Better Busines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Management System Standards for Records. Oct. Seoul, Korea.
- International Management Records Trust(IMRT) (2009). Glossary of Term. London: International Management Records Trust.
-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 Technology(NIST) (2012). 2011-2012 Criteria for Performance Excellence. MD: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MD: NIST.
-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 Technology(NIST) (2014). 2013-2014 Criteria for Performance Excellence. MD: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MD: NIST.
- Nonaka, I. & Takeuchi, H. (1995). The Knowledge-Creating Compan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obson, W. A. (1960). Nationalized Industry and Public Ownership.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 Turban, E., Rainer, R., & Potter, R. (2003). Introduction to Information Technology.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Hoboken.

[관련법령]

-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 『지방공기업법률』

[관련표준]

- 『KS X ISO 30300: 2013, 문헌정보 - 기록경영시스템 - 기본사항 및 용어』
 - 『KS X ISO 30301: 2013, 문헌정보 - 기록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 『KS X ISO 15489-1: 2012, 문헌정보 - 기록관리 - 제1부: 일반사항』
 - 『ISO 30300: 2011.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Management Systems for Records - Fundamentals and Vocabulary』
 - 『ISO 30301: 2011.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Management Systems for Records - Requirement』
 - 『ISO 15489-1: 2001.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Records Management - Part 1: General』
- ISO/IEC Guide 72:2001. Guideline for the justification and development of Management System Standard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Song Ahm (2009). Introduction to ISO 30301 and Responses to the Certification.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System Standard for Records, 2009. 10. [Seoul: 63 Building].
- Cho, Song Ahm (2012a). Introduction to ISO 30301 I: Background. Retrieved June 12, 2014, from <http://www.dims.co.kr/activities/column.php>
- Cho, Song Ahm (2012b). Analysis for the Requirement of ISO 30301. Retrieved June 12, 2014, from http://www.dims.co.kr/activities/column_view.php?idx=606&curr_page=1&code=B&no=2
- Jung, Su Young (2000). Dictionary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PAKYOUNGSA.
- Kim, Cho Rong (2014).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Management System for Records (MSR) Standard on University Archives: based on ISO 30301.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Dong Hi (2007). Administrative Law II (13rd). Seoul: PAKYOUNGSA.
- Kim, Hyo Geun, Kwon, Hui Yeong, & Jeong, Seong Hwi (2001).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the Readiness of an Organization for Knowledge Management.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2(1), 45-63.
- Kim, Hyo Sun (2014). A study on Adoption of ISO 30301 Management System for Records Standard Certifi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Ji Young (2010). A study on the Status: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Profitability of Public Enterprise. Public Finance Forum, 172, 26-46.
- Kim, Jihyun (2013). A Study on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Enterprises Supervised by National Archives of Korea.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3), 73-97.
- Kim, Min Cheol & Kim, Dong Wuk (2007).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Critical Success Factors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Knowledge Management System in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cience, 11(2), 1-28.
- Kwak Kun-Hong (2011). Revaluation of the Records Center System in Korea, 27, 3-33.
- Lee, Kun Chang & Kwon, Soon Jae (2002). KMPI: A Study on Empirical Analysis of Performance Indicators of Knowledge Management: focused on the listed Venture Businesses in KOSDAQ. Korean Management Review, 31(3), 577-601.
- Lee, Young Ho (2014).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Publicity and Entrepreneurship evaluation based on Public Enterprise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 unpublished mater's thes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National Archives Korea (2009). Results of the Pilot Evaluation of 2009 Records Management

- Practice of the Public Enterprises Supervised by National Archives of Korea. Daejeon: National Archives Korea.
- National Archives Korea (2013). Planning for 2014 Records Management Evaluation. Daejeon: National Archives Korea.
- National Archives Korea (2014). Results of 2014 Records Management Evaluation. Daejeon: National Archives Korea.
- National Archives Korea (2015). Results of the Evaluation of 2015 Records Management. Daejeon: National Archives Korea.
- Park, Min Sun (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rd Management and Governmental Performance of Korean Public Enterpri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Ryu, Ga Hyun (2011). Expected Benefits from the Adoption of ISO 30300 Management System for Records Standards Ser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Sub, Do Won, Lee, Deog Ro, & Kim, Chan Jung (2006). An Empirical Study on success Factors of Knowledge Management in Korean Firms: Focus on Comparison by Company Size and Industry Type.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7(2), 69-96.
- Yoo, Minyeon (2012).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Public Enterprises: Focusing on Publicness and Profitabil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Act]

-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Archives.
-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rchives.
-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Standard]

- 『KS X ISO 15489-1: 2012,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Records Management - Part 1: General』
- 『KS X ISO 30300: 2013,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Management Systems for Records - Fundamentals and Vocabulary』
- 『KS X ISO 30301: 2013,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Management Systems for Records - Requirement』

[부록]

〈표 1〉 기록경영 구성 요소의 기술통계

(N=566)

영역	요소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공기업 조직의 환경	정책	1.67	5.00	4.34	0.76	-1.020	.304
	제도 및 조직	1.40	5.00	4.47	0.59	-1.368	2.327
	공기업 조직의 환경	1.75	5.00	4.42	0.58	-1.120	1.108
기록경영 리더십	리더십	1.00	5.00	4.26	0.81	-1.200	1.357
	문서화 의지	2.00	5.00	4.26	0.69	-.721	-.285
	기록경영 리더십	1.67	5.00	4.26	0.67	-.909	.335
기록경영 전략	전략 수립	1.50	5.00	4.01	0.82	-.566	-.284
	전략 실행	1.67	5.00	4.36	0.73	-1.061	.568
	기록경영 전략	2.00	5.00	4.22	0.69	-.828	.137
기록경영의 인적자원과 조직문화	업무 몰입도	2.00	5.00	4.57	0.60	-1.398	1.585
	신뢰 및 협력	1.25	5.00	4.22	0.72	-.962	.729
	기록경영의 인적자원과 조직문화	2.00	5.00	4.34	0.59	-.955	.796
기록시스템 운영	문서화 전략	2.00	5.00	4.19	0.69	-.564	-.425
	프로세스의 투명성	2.57	5.00	4.54	0.52	-1.151	.770
	기록시스템 운영	2.55	5.00	4.41	0.52	-.909	.266
기록경영의 측정·분석 및 개선	평가 및 분석	1.80	5.00	4.26	0.69	-.725	-.171
	보상	1.00	5.00	3.69	0.99	-.475	-.329
	개선	2.00	5.00	4.22	0.75	-.767	-.075
	기록경영의 측정·분석 및 개선	2.00	5.00	4.09	0.71	-.571	-.350

〈표 2〉 상위 요소별 기록시스템 운영 요소에 미치는 영향관계

독립변수	R ²	F	P	β	t	p	VIF
공기업 조직의 환경	.656	212.701	.001	.166	4.809	.000***	1.924
기록경영 리더십				.126	3.154	.002**	2.570
기록경영 전략				.158	3.873	.000***	2.685
기록경영의 인적자원과 조직문화				.231	6.714	.000***	1.911
기록경영의 측정·분석 및 개선				.283	6.990	.000***	2.660

** p<.01, *** p<.001

〈표 3〉 하위 요소별 기록시스템 운영 요소에 미치는 영향관계

독립변수	R ²	F	P	β	t	p	VIF
정책	.688	110.406	.001	.24	.761	.447	1.744
제도 및 조직				.113	3.364	.001**	1.984
리더십				.015	.469	.639	1.881
문서화 의지				.146	4.028	.000***	2.305
전략 수립				.052	1.526	.128	2.014
전략 실행				.072	1.922	.055	2.449
업무 몰입도				.093	3.380	.001**	1.332
신뢰 및 협력				.161	4.970	.000***	1.853
평가 및 분석				.288	6.840	.000***	3.128
보상				-.098	-2.694	.007**	2.334
개선				.179	4.044	.000***	3.465

** p<.01, *** p<.001

〈표 4〉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비율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연령	20대	72	12.7	소속부서	감사	49	8.7
	30대	261	46.1		경영관리	152	26.9
	40대	164	29.0		기획	209	36.9
	50대	69	12.2		인사노무	84	14.8
			재무		72	12.7	
직위	사원	104	18.4	근무연수	1년 이하	50	8.8
	주임	54	9.5		2-3년	118	20.8
	대리	71	12.5		4-5년	63	11.1
	과장	146	25.8		6-7년	31	5.5
	차장	98	17.3		8-9년	59	10.4
	팀장, 부장, 실장 등	88	15.5		10년 이상	245	43.3
	관리자						
기타	5	0.9	문서업무 수행여부	예	379	67.0	
전체		566	100.0	아니요	187	33.0	

〈표 5〉 연령에 따른 기록경영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영역	요소	20대 ^a (n=72)	30대 ^b (n=261)	40대 ^c (n=164)	50대 ^d (n=69)	F	P	Scheffe
공기업 조직의 환경	정책	4.50±0.69	4.25±0.78	4.41±0.73	4.35±0.81	2.742	.043*	a=b=c=d
	제도 및 조직	4.52±0.53	4.39±0.63	4.54±0.54	4.59±0.58	3.597	.013*	a=b=c=d
	공기업 조직의 환경	4.51±0.51	4.33±0.61	4.49±0.54	4.50±0.58	3.727	.011*	a=b=c=d
기록경영 리더십	리더십	4.31±0.71	4.11±0.86	4.33±0.78	4.63±0.58	8.652	.000***	a,b<d
	문서화 의지	4.33±0.71	4.12±0.71	4.32±0.64	4.58±0.55	9.924	.000***	b,c<d
	기록경영 리더십	4.32±0.63	4.11±0.69	4.33±0.64	4.61±0.51	11.727	.000***	a,b,c<d
기록경영 전략	전략 수립	4.13±0.81	3.88±0.86	4.07±0.77	4.20±0.73	4.251	.006**	b<d
	전략 실행	4.39±0.67	4.25±0.78	4.45±0.67	4.56±0.68	4.469	.004**	b<d
	기록경영 전략	4.29±0.64	4.10±0.73	4.30±0.63	4.41±0.64	5.335	.001**	b<d
기록경영의 인적자원과 조직문화	업무 몰입도	4.67±0.49	4.47±0.66	4.61±0.60	4.79±0.37	6.814	.000***	b<d
	신뢰 및 협력	4.39±0.61	4.11±0.76	4.28±0.70	4.34±0.69	4.426	.004**	b<a
	기록경영의 인적자원과 조직문화	4.48±0.50	4.23±0.64	4.39±0.56	4.49±0.50	6.499	.000***	b<a,d
기록시스템 운영	프로세스의 투명성	4.25±0.66	4.12±0.70	4.20±0.70	4.40±0.62	3.400	.018*	b<d
	문서화 전략	4.63±0.39	4.43±0.56	4.61±0.46	4.64±0.52	6.442	.000***	b<d
	기록시스템 운영	4.49±0.43	4.32±0.55	4.46±0.48	4.55±0.52	5.707	.001**	b<d
기록경영의 측정·분석 및 개선	평가 및 분석	4.35±0.64	4.15±0.73	4.32±0.65	4.43±0.56	4.504	.004**	b<d
	보상	3.88±0.95	3.54±1.01	3.65±1.01	4.16±0.75	8.189	.000***	b,c<d
	개선	4.31±0.74	4.12±0.76	4.24±0.76	4.47±0.62	4.559	.004**	b<d
	기록경영의 측정·분석 및 개선	4.21±0.68	3.98±0.74	4.11±0.69	4.36±0.54	6.680	.000***	b<d

* p<.05, ** p<.01, *** p<.001, 집단간 차이가 발생한 요소만 정리함.

〈표 6〉 소속부서에 따른 기록경영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영역	요소	감사 ^a (n=49)	경영관리 ^b (n=152)	기획 ^c (n=209)	인사노무 ^d (n=84)	재무 ^e (n=72)	F	P	Scheffe
기록경영의 인적자원과 조직문화	업무 몰입도	4.71±0.55	4.60±0.57	4.60±0.57	4.56±0.63	4.37±0.71	2.828	.024*	e<a
	신뢰 및 협력	4.38±0.69	4.21±0.69	4.33±0.66	4.08±0.81	3.97±0.80	4.848	.001***	e<a,c
	기록경영의 인적자원과 조직문화	4.49±0.52	4.34±0.56	4.42±0.54	4.24±0.68	4.11±0.68	5.242	.000***	e<a,c
기록경영의 측정·분석 및 개선	개선	4.44±0.67	4.25±0.71	4.25±0.74	4.14±0.84	4.04±0.77	2.504	.041*	e<a

* p<.05, ** p<.01, *** p<.001, 집단간 차이가 발생한 요소만 정리함.

〈표 7〉 직위에 따른 기록경영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요인	요소	사원·주임 ^a (n=158)	대리 ^b (n=71)	과장·차장 ^c (n=244)	관리자 ^d (n=88)	F	P	Scheffe
기록경영 리더십	리더십	4.22±0.74	4.28±0.77	4.18±0.87	4.63±0.52	7.563	.000***	a,b,c<d
	문서화 의지	4.23±0.69	4.14±0.70	4.23±0.70	4.55±0.50	6.256	.000***	a,b,c<d
	기록경영 리더십	4.23±0.64	4.21±0.64	4.21±0.70	4.59±0.43	8.438	.000***	a,b,c<d
기록경영 전략	전략 실행	4.35±0.69	4.39±0.80	4.29±0.77	4.58±0.60	3.565	.014*	c<d
	기록경영 전략	4.23±0.68	4.22±0.74	4.14±0.71	4.41±0.57	3.429	.017*	c<d
기록경영의 인적자원과 조직문화	업무 몰입도	4.59±0.57	4.51±0.68	4.50±0.64	4.77±0.42	4.745	.003**	b,c<d
	기록경영의 인적자원과 조직문화	4.33±0.63	4.30±0.69	4.30±0.57	4.50±0.49	2.623	.050*	a=b=c=d
기록시스템 운영	프로세스의 투명성	4.20±0.69	4.09±0.73	4.14±0.70	4.41±0.60	4.154	.006**	b<d
	문서화 전략	4.52±0.52	4.41±0.54	4.54±0.52	4.66±0.45	3.130	.025*	b<d
	기록시스템 운영	4.40±0.52	4.29±0.55	4.39±0.52	4.57±0.47	4.064	.007**	b<d
기록경영의 측정·분석 및 개선	보상	3.73±1.00	3.51±1.11	3.61±0.98	4.03±0.83	4.808	.003**	b,c<d
	개선	4.21±0.75	4.17±0.86	4.16±0.75	4.47±0.61	3.955	.008**	b,c<d
	기록경영의 측정·분석 및 개선	4.09±0.72	4.01±0.80	4.05±0.70	4.30±0.60	3.129	.025*	b<d

* p<.05, ** p<.01, *** p<.001, 집단간 차이가 발생한 요소만 정리함.

〈표 8〉 근무연수에 따른 기록경영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영역	요소	3년 이하 ^a (n=168)	4-9년 ^b (n=153)	10년 이상 ^c (n=245)	F	P	Scheffe
공기업 조직의 환경	제도 및 조직	4.42±0.64	4.40±0.59	4.55±0.54	4.036	.018*	a=b=c
	기록경영 리더십	4.19±0.79	4.15±0.89	4.39±0.75	5.262	.005**	b<c
기록경영 전략	문서화 의지	4.23±0.69	4.11±0.71	4.38±0.65	7.682	.001**	b<c
	기록경영 리더십	4.21±0.65	4.13±0.72	4.38±0.62	7.849	.000***	a,b<c
	전략 실행	4.32±0.73	4.26±0.77	4.45±0.70	3.766	.024*	b<c
기록시스템 운영	프로세스의 투명성	4.20±0.70	4.08±0.69	4.26±0.68	3.149	.044*	a=b=c
	문서화 전략	4.52±0.52	4.43±0.52	4.62±0.49	6.472	.002**	b<c
	기록시스템 운영	4.40±0.53	4.30±0.52	4.48±0.50	6.012	.003**	b<c
기록경영의 측정·분석 및 개선	평가 및 분석	4.26±0.66	4.14±0.76	4.33±0.64	3.961	.020*	b<c
	기록경영의 측정·분석 및 개선	4.09±0.70	3.98±0.78	4.17±0.65	3.323	.037*	b<c

* p<.05, ** p<.01, *** p<.001, 집단간 차이가 발생한 요소만 정리함.

〈표 9〉 문서관리업무 수행여부에 따른 기록경영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영역	요소	예(n=379)	아니요(n=187)	t	P
기록경영 리더십	리더십	4.33±0.77	4.13±0.86	2.722	.007**
	기록경영 리더십	4.31±0.65	4.17±0.69	2.208	.028*
기록경영 전략	전략 실행	4.42±0.69	4.24±0.80	2.610	.009**
	기록경영 전략	4.27±0.66	4.12±0.73	2.389	.017*
기록시스템 운영	프로세스의 투명성	4.24±0.67	4.09±0.73	2.443	.015*
	기록시스템 운영	4.45±0.50	4.34±0.55	2.437	.015*
기록경영의 측정·분석 및 개선	평가 및 분석	4.31±0.65	4.15±0.74	2.566	.011*
	보상	3.78±0.99	3.52±0.99	2.894	.004**
	개선	4.28±0.72	4.11±0.80	2.422	.016*
	기록경영의 측정·분석 및 개선	4.16±0.69	3.97±0.73	3.017	.003**

* p<.05, ** p<.01, 집단간 차이가 발생한 요소만 정리함.

〈표 10〉 기관별 특성에 따른 집단별 빈도 분포

특성	구분	계(명)	비율	특성	구분	계(명)	비율
기관 규모	300명 미만	104	18.4	필수조직 비율	15% 미만	210	37.1
	300명 이상 - 1000명 미만	215	38.0		15% 이상 - 30% 미만	282	49.8
	1000명 이상	247	43.6		30% 이상	74	13.1
기관 유형	SOC	174	44.5	조직 체계	실무조직	104	18.4
	서비스·진흥·제조	256	55.5		중간조직	462	81.6
기록관리 평가	국가기록원 평가 유	404	71.4	계		566	100.0
	국가기록원 평가 무	162	28.6				

〈표 11〉 기관 규모에 따른 기록경영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영역	요소	300명 미만 ^a (n=104)	301명-999명 ^b (n=215)	1000명 이상 ^c (n=247)	F	P	Scheffe
공기업 조직의 환경	정책	4.35±0.75	4.45±0.71	4.24±0.80	4.390	.013*	c<b
기록경영 리더십	리더십	4.39±0.68	4.16±0.93	4.30±0.73	3.283	.038*	b<a
기록경영의 인적자원과 조직문화	업무 몰입도	4.63±0.58	4.67±0.53	4.46±0.64	8.196	.000***	c<a,b
	신뢰 및 협력	4.41±0.63	4.24±0.74	4.12±0.73	5.896	.003**	c<a
	기록경영의 인적자원과 조직문화	4.48±0.53	4.39±0.59	4.24±0.61	7.592	.001**	c<a
기록경영의 측정·분석 및 개선	보상	3.60±1.08	3.85±1.02	3.60±0.92	4.364	.013*	a=b=c

* p<.05, ** p<.01, *** p<.001, 집단간 차이가 발생한 요소만 정리함.

〈표 12〉 기관 유형에 따른 기록경영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영역	요소	SOC (n=252)	서비스·진흥·제조 (n=314)	t	P
기록경영의 인적자원과 조직문화	신뢰 및 협력	4.13±0.74	4.29±0.70	-2.637	.009**
	기록경영의 인적자원과 조직문화	4.28±0.60	4.38±0.58	-2.076	.038*
기록경영의 측정·분석 및 개선	보상	3.46±0.99	3.88±0.96	-5.169	.000***
	기록경영의 측정·분석 및 개선	4.00±0.69	4.17±0.71	-2.913	.004**

** p<.01, *** p<.001, 집단간 차이가 발생한 요소만 정리함.

〈표 13〉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평가 유무에 따른 기록경영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영역	요소	유(n=404)	무(n=162)	t	P
공기업 조직의 환경	정책	4.50±0.68	4.27±0.78	3.298	.001**
	공기업 조직의 환경	4.51±0.52	4.38±0.60	2.402	.017*
기록경영 리더십	리더십	4.53±0.62	4.16±0.85	5.819	.000***
	문서화 의지	4.40±0.65	4.21±0.69	3.125	.002**
	기록경영 리더십	4.47±0.58	4.18±0.68	5.051	.000***
기록경영 전략	전략 수립	4.19±0.86	3.93±0.79	3.341	.001**
	전략 실행	4.47±0.72	4.32±0.73	2.173	.030*
	기록경영 전략	4.36±0.71	4.17±0.67	2.980	.003**
기록경영의 인적자원과 조직문화	업무 몰입도	4.72±0.51	4.51±0.62	3.972	.000***
	신뢰 및 협력	4.51±0.58	4.10±0.74	6.945	.000***
	기록경영의 인적자원과 조직문화	4.58±0.49	4.24±0.61	6.960	.000***
기록경영의 측정·분석 및 개선	평가 및 분석	4.38±0.69	4.21±0.68	2.624	.009**
	보상	3.89±1.05	3.62±0.96	2.846	.005**
	개선	4.33±0.77	4.18±0.74	2.237	.026*
	기록경영의 측정·분석 및 개선	4.23±0.75	4.04±0.68	2.823	.005**

* p<.05, ** p<.01, *** p<.001, 집단간 차이가 발생한 요소만 정리함.

〈표 14〉 조직 체계 구분에 따른 기록경영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영역	요소	실무조직(n=104)	중간조직(n=462)	t	P
기록경영리더십	리더십	4.39±0.68	4.23±0.83	1.993	.048*
기록경영의 인적자원과 조직문화	신뢰 및 협력	4.41±0.63	4.18±0.74	3.274	.001**
	기록경영의 인적자원과 조직문화	4.48±0.53	4.31±0.60	3.025	.003**

* $p < .05$, ** $p < .01$, 집단간 차이가 발생한 요소만 정리함.

〈표 15〉 필수 조직 비율에 따른 기록경영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영역	요소	15% 미만 ^a (n=210)	15%-30% ^b (n=282)	30% 이상 ^c (n=74)	F	P	Scheffe
공기업 조직의 환경	정책	4.43±0.70	4.24±0.8	4.45±0.73	4.562	.011*	a=b=c
	공기업 조직의 환경	4.50±0.54	4.35±0.62	4.47±0.51	4.005	.019*	a=b=c
기록경영 리더십	리더십	4.50±0.63	4.05±0.91	4.42±0.61	21.962	.000***	b<a,c
	문서화 의지	4.33±0.64	4.18±0.72	4.4±0.66	4.507	.011*	b<c
	기록경영 리더십	4.41±0.55	4.11±0.73	4.41±0.56	14.981	.000***	b<a,c
기록경영의 인적자원과 조직문화	업무 몰입도	4.48±0.65	4.59±0.59	4.80±0.39	8.309	.000***	a,b<c
	신뢰 및 협력	4.33±0.67	4.09±0.77	4.43±0.58	10.723	.000***	b<a,c
	기록경영의 인적자원과 조직문화	4.38±0.59	4.25±0.62	4.56±0.45	8.577	.000***	a,b<c
기록시스템 운영	문서화 전략	4.62±0.48	4.47±0.54	4.53±0.48	5.083	.006**	a=b=c
	기록시스템 운영	4.49±0.48	4.36±0.54	4.39±0.52	3.695	.025*	a=b=c
기록경영의 측정·분석 및 개선	보상	3.89±0.86	3.58±1.03	3.58±1.11	6.607	.001**	b,c<a
	개선	4.36±0.66	4.14±0.79	4.15±0.78	5.491	.004**	a=b=c
	기록경영의 측정·분석 및 개선	4.22±0.61	4.01±0.74	4.04±0.78	5.629	.004**	b<a

* $p < .05$, ** $p < .01$, *** $p < .001$, 집단간 차이가 발생한 요소만 정리함.